

현이는 말합니다

“이제 제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됐어요.
다른 소아당뇨 친구들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은숙 / 한림대의료원 춘천성심병원 사회사업과

박 현(21세)군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학년 학생으로 늘 씩씩하고 낙천적인 모습입니다. 현이는 자신처럼 아프고 마음에 상처입은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였고 근로 장학생으로 공부하며 동아리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이가 그런 밝은 모습을 찾기까지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현이는 7살이 되던 해 제 1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현이는 물론 가족들에게 당뇨병은 낫설기만 했습니다. 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었지만 어려운 살림으로 당뇨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일용직을 하시던 아버지의 수입으로는 네 식구가 생활하기에도 빠듯하여 현이가 정기적으로 외래를 다니며 인슐린 주사약을 구입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의 일거리가 점차 줄어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해졌고 가족들은 작은 희망을 갖고 춘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이 아버지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점차 음주횟수가 증가하

여 매일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이는 그런 아버지와 대화조차 하기 싫었고 집에는 늘 다툼과 고향만 있어왔으며 카드 빚은 점차 증가하기만 하였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해서는 작은 체구 때문이었던지 반 친구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날이 많았고 친구들의 구타행동이 반복될수록 ‘자살’을 생각하며 삶에 대한 의욕도 잃기 시작했습니다. 당뇨관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2003년에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16.7%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교회를 찾았다가 종교를 갖게 되면서 현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현이가 마음을 열자 아버지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이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 정신과 치료를 함께 받으며 2005년 6월부터 단주를 시도하여 현재까지 단주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이와 가족들은 당뇨관리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혈당조절에 관심을 갖고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것을 격려하는 의미로 본 과에서는 당뇨교육실로부터 기증받은 혈당측정기를 현이에게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자신의 혈당측정기를 가져본 것에

기뻐하며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배우는 모습도 보였지만 스트립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증받은 혈당측정기는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혈당관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 6월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으로 전환되었고 자활후견사업을 통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도 간헐적으로 일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이의 등록금과 학비에 대한 부담으로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이는 자신의 학비와 진료비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진다는 생각에 정기적으로 외래를 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은 자신들 때문에 현이가 당뇨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 미안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현이가 보다 적극적으로 당뇨관리를 하고 지금처럼 씩씩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박 현군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도움주실 곳 : 515-04-728556 (조흥은행 / 예금주 : 박 현)

문 의 : 033-240-5676 (춘천성심병원 사회사업과 김은숙)

함께 하면 **큰 힘**이 됩니다.

기부를 받습니다.

□ 기부안내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공익성 기부금 손비 인정단체로, 기부해 주시는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보내주시면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기부금 송금계좌 : 우리은행 195-138439-13-001(예금주: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문의전화 : 02-771-8542

-기부금공제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10%

※관련법규 : 본 협회에 기부해주시는 후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 1항 제 3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되어 손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인단체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www.dangnyo.or.kr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는 「당뇨병 예방과 치료」를 모토로 우리나라 400만 당뇨인의 건강, 권익,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